

KOREA IPG

INFORMATION

issue 032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 2016.6

발행 : 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 지적재산팀)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 히데오

편집 : 조은실, 문형일, 안아름



◎ 한국IPG의 활동

- '제16회 한국IPG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01
- 2015년도 건의사항 결과보고 04
- 주요 소재분야의 한국 특허동향 조사결과 05
- '2016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07

◎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8
- 「신·지재 최전선은 지금」 09
- 한국에서의 조기 특허등록 방법
- 반도체 장비 시장 동향 및 한국 특허출원 동향



한국IPG 회원 등록

http://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이번 호는 세미나 기사를 포함한 주요 뉴스가 많은 관계로 지면을 추가하여 10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PP합의에서와 같이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측면에서도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개최한 IPG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각국에서 지식재산 조사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JETRO 등의 주재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각국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식재산을 보다 더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정의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지식재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세미나를 기획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CAUTION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상표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① 소주 상표
- ② 화장품 상표
- ③ 간장 상표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IPG의 활동

‘제16회 한국 IPG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IPG는 2016년5월17일(화) SJCH회의실에서 제16회 IPG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년에 이어 아시아의 제트로 및 교류협회 지재담당자를 초빙하여 각국의 지재관련 정보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강연으로 후카미특허사무소의 나가노 아츠시 변리사가 균등론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교류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요를 소개드립니다.

◎ 중국지식재산제도의 개요

제로 베이징 지적재산부 | 훈마 토모타카 부장

중국은 출원 수 기준 세계 1위의 나라로 2015년 출원건수는 특허 약 110만건, 실용신안·디자인은 각각 약 113만건, 약 57만건입니다. 출원건수의 급증에 대비하여 중국정부는 심사관을 대량으로 채용하여 이미 1만명이 넘는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심사관은 국가지식재산권(SIPO) 외에도 전국 7곳의 심사협작중심이라는 조직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품질도 기준·목표설정, 지속적인 신규 심사관 교육을 통해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지재권 제도 전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대강”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발표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이를 심화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에는 제2의 지재전략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세의 지적재산강국 건설가속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도 지재권 보호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12월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재법원(제1심)을 설립하여, 기술조사관 및 심판관 보좌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어려운 기술분야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징에는 지적재산권 사례지도 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전국법원의 판단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대책으로는 지식산업국, 공상국, 세관 등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상거래증가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기관이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거나 플랫폼 자체로도 독자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재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상황을 평균치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역이나 기업간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톱클래스 기업, 지역의 최신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기업 약 200사 및 단체의 지재담당자로 구성된 중국IPG는 법률·제도·운용에 대해 검토·의견제안, 권리자 침해 등의 지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메콩지역)의 지재상황

제트로방콕지재재산부 | 타카다모토키부장

ASEAN주요국의 출원상황을 보면 특허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의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건수가 가장 많은 싱가포르도 1만건 정도로 일본의 약 30분의 1입니다. ASEAN지역에서 일본은 중요한 출원국이며, 특히 태국의 경우 2012년에 전체 특허출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1의 출원국입니다. 상표출원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에 6만건 이상이었으나 다수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며, 모인출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인 국적도 내국인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출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재와 관련한 ASEAN지역의 협력은 ASEAN특허·상표청, ASEAN특허·상표제도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한 시기(1990년대)도 있었으나, 현재는 각국이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각국의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SEAN지식재산활동계획 2011-2015에서 내걸었던 “2015년내 ASEAN전가맹국의 마드리드협정 가입”이라는 목표도 다소 늦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지난달(2016년 4월)에 개정상표법이 성립된 태국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가까운 시일내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ASEAN지역에서의 상표취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ASEAN지역에서는 법률은 갖추고 있으나 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출원에서 권리화까지의 기간도 매우 긴데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특허의 외국출원은 평균 약10년11개월, 내국출원은 6년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PPH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6개국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의 경우 권리화지원

의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EAN지역의 직무발명, 영업비밀보호, 공보, 판결 등의 관한 정보는 제트로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world/asia/asean/ip.html>)에서 공개 또는 공개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콩지역 각국의 지재상황을 보면, 1)캄보디아는 “국가지재전략 2013-2023”을 책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달(2016년 5월)에 캄보디아 공상수공업성(MIH)과 JPO간에 특허부여원활화에 관한 협력(CPG)에 합의 하였고, 7월부터 일본에서 특허가 된 출원은 CPG신청에 의하여 캄보디아에서 실질적으로 무심사로 특허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미얀마는 현재 지재법으로는 저작권법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WIPO의 지원등으로 지재법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JPO에서 심사관을 파견하여 지식재산청 설립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베트남은 미국의 스페셜301조의 “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기업의 위조상품 피해가 많아 제트로의 베트남세관총국 ASID와 국경에서의 위조상품대책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태국은 ASEAN지역 최대의 일본기업진출국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심사관수를 대폭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소리상표, 마드리드 협정 가입에 대응하는 상표법 개정이 올해 7월 말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301조의 “우선감시국”일 정도로 위조상품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것도 있으나 약90%가 중국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트로에서는 위조상품식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

제트로 싱가포르지재재산부 | 이소즈미츠요시부장

싱가포르는 태국과 더불어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국입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하여 여러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상황을 보면 외국출원이 약9천건으로, 내국출원 약1천건에 비하여 외국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싱가포르를 마케팅시장으로 보고있는 해외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로 보면, 싱가포르 정부가 산업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분야의 약진이 보여집니다. 출원인 국적을 보면 TOP5는 미국(3,645건), 일본(1,424건), 싱가포르(1,303건), 스위스(550건), 독일(543건)입니다. 미국기업은 일본기업의 2배이상의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전부터 그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많았던 것, 또한 ASEAN지역의 진출을 위한 창구로서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기업 출원의 주요분야는 의학, 유기화학, 바이오이며, 일본기업 출원의 주요분야는 고분자, 반도체, 유기화학입니다. 출원인으로 보면 싱가포르 연구기관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미국·유럽기업, 중국기업이 TOP 10에 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유치를 위하여 많은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

재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4월에 발표한 “특허 허브 마스터플랜”입니다. 이 계획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지재권허브로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며 1)지재거래와 관리의 허브, 2)고품질지재출원의 허브, 3)지재분쟁해결의 허브 세가지의 전략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실체심사를 개시하였고, 2015년9월부터 ASEAN최초의 국제조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특허심사관을 100명 이상 채용하였으며 그 90% 이상이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또한 중국어문헌의 조사능력이 높은 것이 싱가포르의 장점입니다. 이에 따라 2)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은 거래의 예측곤란성 때문에 아직 시행착오 단계에 있습니다. 3)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중재기관으로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를 선택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의 특징으로 ASEAN지식재산청간의 활동인 ASEAN특허협력(ASPEC)을 촉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얀마를 제외한 ASEAN9국가 간에 심사결과의 이용을 통하여 타국에서 조기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사가 비교적 빠른 싱가포르의 결과를 이용하여 ASEAN각국에 출원할 경우 권리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

교류협회타이페이사무소경제부 | 고칸 토이치로 주임

대만은 IP5와 독일에 이어 특허출원접수건수 세계 7위의 지역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출원건수는 외국출원 중 특허 1위, 상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국제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PCT, 마드리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등 일본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는 일본-대만 양자의 협력각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출원동향으로 보면 외국출원은 보합상태이나 국내출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하이를 포함한 대만기업의 지재전략이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 이유입니다.

일본브랜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일본어자막을 이용한 CM이나 일본어 CM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모방도 존재합니다. “사누키사건”, “카무쿠라”, “PORTER”로 대표되는 지명상표나 모인상표의 출원도 많습니다. 또 다른 대만 내 문제로는 영업비밀유출이 있습니다. 중국·한국보다는 문제가 작기는 하나, 대만인·대만기업은 기밀유출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정착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비밀유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만정부는 2013년 2월에 종전의 민사적제재 뿐이었던 것을 개선하여 형사벌 추가 등을 요지로 하는 영업비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병행수입문제, 위조상품-해적판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상품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대만당국은 위조상품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으로는 특허·디자인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점, 수사에 있어서

권리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조 등이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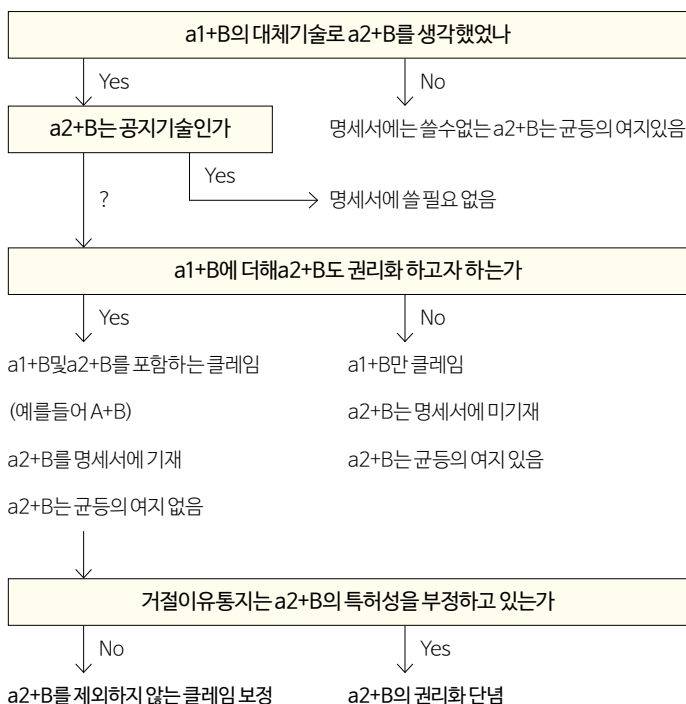
대만경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안은 ECFA(양안경제협력구조결정)등 양안의 경제협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재에 관해서도 양안간의 우선권주장 승인, 심사관 교류, 고위층 회담 개최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인에게 중국전리사자격(변리사)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중국-대만 양 쪽의 출원서류를 일원화하여 작성함으로써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균등침해의 제5요소(의식적 제외)에 대한 고찰

특허업무법인 후카미특허사무소 | 나가노 아츠시 변리사

균등론이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특허청구의 범위(클레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경우, 클레임의 주요부 이외의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여 용이하게 특허권을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균등침해성립을 위한 요건으로는 5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번에는 제5요건 “의식적 제외”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후, 나중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가호의 물품)의 구성 중, 특허발명을 일부치환한 구성에 대해 특허발명의 출원단계에서 클레임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 판례에 따라 1)가호를 알

〈a2+B를 명세서에 써야하는가?〉



출처: 제16회IPG세미나강연자료로부터발췌

고 있는 상태에서 함축보정하는 경우만을 의식적 제외라고 판단하는 케이스와 2)보정에 의해 제외된 범위는 전부 의식적 제외라고 판단하는 케이스 2가지의 판단기준으로 “의식적으로”의 의미는 유동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호의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보정서·의견서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로도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i)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구성(실시행태)는 의식적으로 제외되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ii)원래의 권리범위 A+B를 a1+b로 함축보정하고,가호 a2+B를 제외한 경우 명세서에 가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가 없는 경우보다 의식적 제외라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iii)출원 시의 클레임이 a1+B로 보정이 없더라도 명세서에 가호 a2+B가 있던 경우에는 기재가 없는 쪽보다 의식적 제외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a2가 a1의 대체물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역지로 의식적으로 a2+B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iii)의 판단에 해당하는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a2+B를 명세서에 기재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3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퀴즈 정답

정답은 ③간장 상표입니다.

아래의 '샘표' 상표(제362호)는 1954.05.10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62년이상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①소주(진로), ②화장품(테평양) 상표도 각각61년, 57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장수상표입니다.



2015년도 건의사항 결과보고

한국IPG는 서울재판클럽(SJC)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중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11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 지난 5월11일에 실시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일본의 경제산업대신)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답변을 받았기에 이번 호에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건의사항답변상황 일람표(괄호안은 전년도, 보건·위생의 일부는 지재안전)

분야	항목수	수용완료	수용가능	부분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답변곤란
노동	4 (4)	0(0)	0(0)	2(1)	1(2)	1(1)	0(0)
세무	9 (10)	2(1)	0(0)	1(0)	2(1)	4(8)	0(0)
금융	11 (9)	1(2)	1(0)	1(3)	1(1)	7(3)	0(0)
지식재산권	7(19)	1(3)	0(2)	0(2)	5(7)	1(5)	0(1)
산업	14(10)	2(2)	0(0)	4(0)	1(2)	7(6)	0(0)
보건·위생	9(0)	2(0)	0(0)	3(2)	1(0)	3(4)	0(0)
개별요망사항	3(6)	0(0)	0(0)	1(2)	0(0)	2(4)	0(0)
합계	57(58)	8(8)	1(2)	12(10)	11(13)	25(3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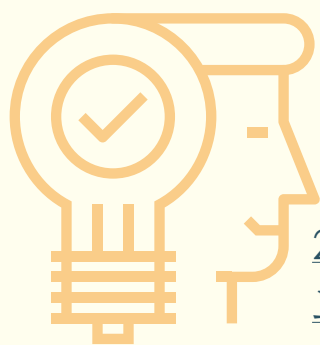
2015년도 지식재산권분야의 건의사항

#	카테고리	건의내용	신규/계속	2015년 한국정부 답변	2014년 한국정부 답변
1	①	무효심판·소송시 이유 및 증거보충의 제한	신규	장기검토	-
2	①	판례에서 인정된 사항의 명문화 ①권리범위의 해석원칙 명확화 ②침해소송시 무효항변 인정의 입법화	신규	수용곤란	-
3	②	수출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화	계속	장기검토	부분수용
4	②	특허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5	②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6	③	상표의 선후원 관련규정 적용 판단시기 개선	신규	수용(2016년 9월 시행예정)	-
7	③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의 답변기간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기간의 장기화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8	④	후발품 발매지연에 따른 특허권자의 부당이득반 환청구규정 신설의 재검토	계속	수용	수용곤란
9	④	의약품허가연계제도(patent linkage) 문제점 개선	계속	수용곤란	수용곤란
10	④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IMD 폐지	계속	수용곤란	수용곤란
11	④	특허권존속연장제도의 외국임상시험기간 가산	계속	수용곤란	수용곤란

【카테고리】①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②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③특허청 심사·심판, ④보합·위생

이번에 중점 항목으로 건의한 안건은 상기 표의 #1 및 #8이었는데 #1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5월11일에 개최한 의견 교환 자리에서 '건의 취지인 무효심판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 '금년도 내에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기 표의 #8에서는 당초 건의한 대로 법안중 문제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세한 건의사항 내용과 한국 정부의 답변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IPG}

●서울재팬클럽 SJC자료실 <http://www.sjchp.co.kr/whats/whats4.php>



2016년도 건의사항을 모집합니다

올해도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오는 2016년 12월에 한국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법제도·운용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장벽이 되고 있는 사항 등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의 설문조사지에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G}

●홈페이지 <http://www.jetro-ipr.or.kr/>

(알림 또는「한국IPG」의「SJC건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출처 SJC지재위원회 / 한국IPG사무국(JETRO서울 지재팀)

e-mail : kos-jetroipr@jetro.go.jp

●제출기한 2016년8월26일(금)

●주의사항 건의해주신 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내용 확인 및 조정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건의해주신 사항 중에서 SJC에서 정리·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별 한 후 건의사항으로 제출하게 됨에 대해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소재분야의 한국 특허동향 조사결과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은 일본 및 독일로부터 고기능 소재·부품을 구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대만, 아세안 등의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국 대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능의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부품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동법의 기한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여 '2020년까지는 일본을 추월하여 소재부품 세계 제4위의 국가'를 목표로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선언하였습니다.

구체적인R&D지원사업으로서 10년후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지원하는 「World Premium Material (WPM)」 사업과 2~3년 만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 '20대 핵심 소재부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2018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체트로 서울사무소에서는 한국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기술 중,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재료', '이차전지용 전극재료', 'OLED(유기EL) 용 기능성 유기재료'에 착목하여 이와 같은 분야의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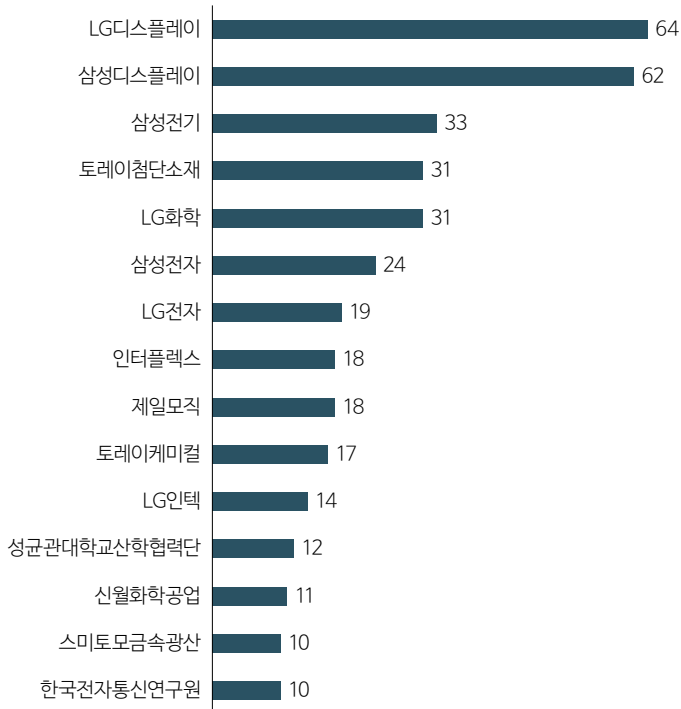
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재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재료에 관한 한국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2003년까지의 출원건수는 10건 정도였으나 2004년부터 급증하여 2013년에는 114건에 이르렀습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 출원인이 전체의 약 79%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이어 일본(약12%), 미국(약4%) 순이었습니다.

기업별 출원건수를 보면 한국은 삼성·LG그룹의 출원이 눈에 띄고 한국 중소기업인 인터플렉스회사가 전체 순위 중 8위로 18건을 출원하여 주목됩니다. 외국기업으로는 일본기업이 상당수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둘러싸고 한국 개별기업 다음으로 일본기업이 개발 및 특허출원에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관련 상위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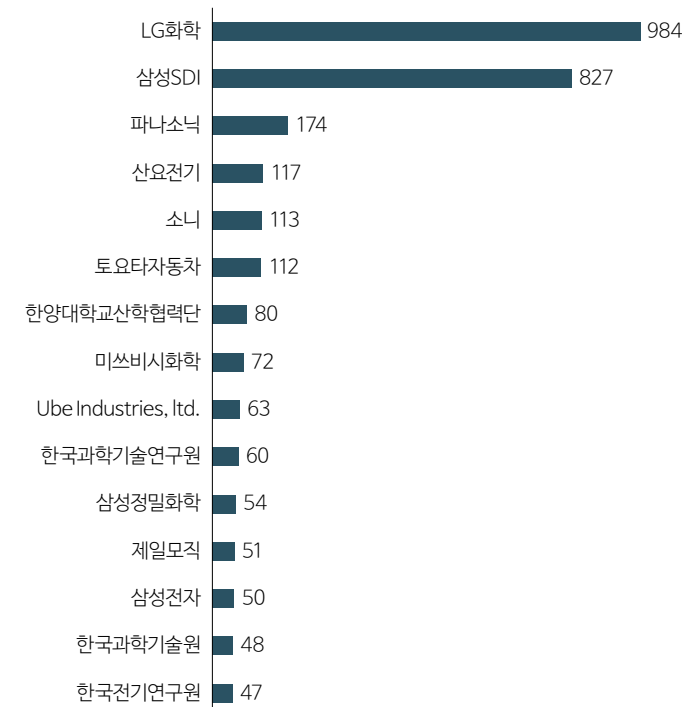


2. 이차전지용 전극재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한국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2009년까지 100~300 건 정도의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 출원인이 전체의 약65%, 일본 출원인이 약

[그림] 이차전지 소재의출원인별 순위



29%로 한국과 일본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약 3.0%), 독일(약1.2%), 중국(약0.5%) 순이었습니다.

기업별 출원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화학·삼성SDI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이어 일본 제조업체가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품·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약 50개 회사인데 이들 중소기업은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지 않으며 이차전지 소재의 특허경쟁은 주로 한국의 이차전지 제조업체 2개 회사와 일본기업 간에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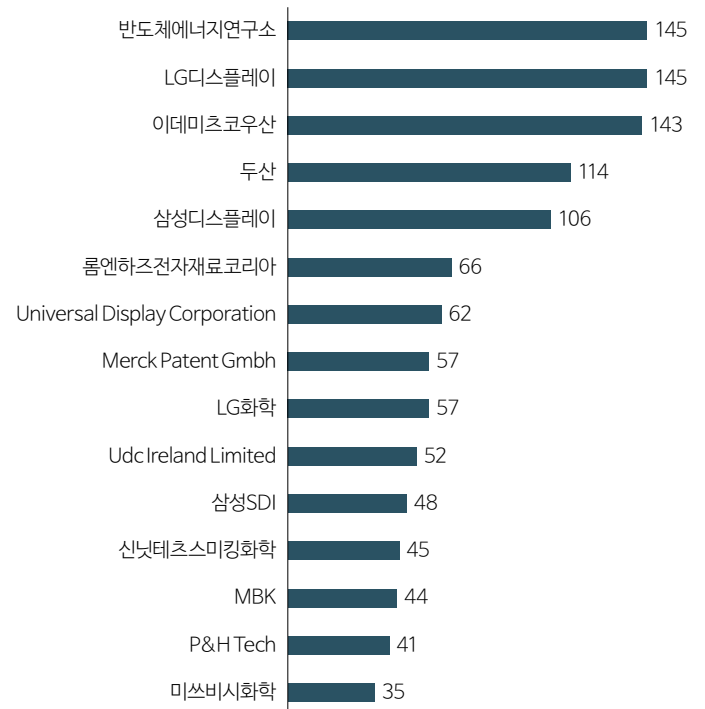
3. OLED(유기EL) 용 기능성 유기재료

OLED소재에 관한 한국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2000~2009년까지는 130 건 정도의 출원이 있었으나 2010년이후 급증하여 2013년에는 338 건의 출원이 있었습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출원인이 각각 전체 건수의 45%,36%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기업별 출원건수를 보면 한국기업만이 아니라 외국기업도 왕성하게 출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양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OLED시장에서는 한국 제조업체와 일본, 미국, 유럽의 제조업체가 치열하게 특허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PG

[그림] OLED소재의출원인별 순위



2016년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5월25일 리츠칼튼 서울에서 한국 특허청 주최로 표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심판 소송제도의 조화’를 주제로 한미일 특허청 및 지식재산 전문재판소의 강연자를 초빙하였습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시타라 류이치 소장 및 타카베 부장판사, 일본 특허청의 야마시타 심판과장이 참석하여 일본의 심판 및 소송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특허청 최동규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4산업혁명을 맞이 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특허소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특허청이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제도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한국 특허법원은 재판 단계에서도 무제한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양측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제6회 국제 지식재산권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지난 6월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 특허청과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으로 표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최신 기술영역에 관한 지식재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중에 이와 같은 기술

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귀속문제, 그것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정보누설 문제 등, 조기에 관련 제도를 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DIC 주식회사 코노 지재센터장 및 미국변호사의 일본과 미국의 무효심판제도에 관한 강연 및 패널토론이 있었습니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 특허청의 강희정 심사제도 과장은 일본과 미국이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지자체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개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6월9일~10일 양일간에 걸쳐 표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에는 전국 지식재산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7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①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단속현황 소개, ②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단속지원 현황 소개 및 단속 실무교육, ③인천시청 단속 사례 소개, ④상표권자의 단속 사례 소개 및 진위판정 교육, ⑤한국 소비자원의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소개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④번에 대해서는 JETRO-KOIPA 간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교육에는 몽클레어 재팬(주:이탈리아 ‘MONCLER S.P.A.’와 일본 ‘야기통상 주식회사’와의 합병회사)의 법무 지적재산담당자인 치비키 린 씨가 강연해 주셨습니다. 사진 및 실물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OREA IP NEWS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게재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①특허청, 3,200억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사범 일당, 검거 | 한국특허청(2016.3.31.)

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 총책 장모씨(45세) 및 관리책 김모씨(32세)와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 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10년 9월)이후, 유통물품 금액이 국내 최대 규모급으로써,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②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 한국특허청(2016.4.11)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 511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로クター앤드갬블(Procter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내에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③특허법원, IP분쟁해결을 위한 IP사건 전문 드림팀의 구성 | 특허법원(2016.4.15.)

특허법원은 2016년 4월 11일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IP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소송 분야의 권위있는 법률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1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IP분쟁사건이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띠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특허침해사건의 조정 성공율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법원은 IP소송에 대한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각 사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④LG전자-퀄컴과 특허로 분쟁 타결...중재요청 철회 | 전자신문(2016.4.21.)

LG전자가 퀄컴과의 특허로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는 21일(현지시각) 가진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LG전자와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해 12월 스마트폰 관련 기술 원천특허를 보유한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한다며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 특허로 관련 중재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는 3G WCDMA와 CDMA2000, 4G LTE 무선통신을 포함한 여러가지 무선통신기술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⑤일본내 한국인 특허출원건수, 12년 연속 3위! | 한국특허청(2016.5.2)

특허청이 최근 일본특허청이 발표한 Status Report 2016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일본 내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26,501건), 독일(6,430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3,369건), 중국(2,84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일본 내 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7,220건을 정점으로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꾸준한 출원 경향을 보이며 2004년 이후 줄곧 국가별 순위에서 상위를 유지하였다.

같은 기간 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국으로 2004년에는 출원건수가 25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004년 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에 이어 연속 5위를 차지하였다. IPG

한국에서의 조기 특허등록 방법

-우선심사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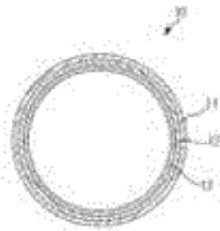
발명을 조기에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가능한 신속하게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특허심사 착수까지의 평균 대기기간은 현재 약 1년이나 이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제도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1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이 가능한 우선심사

한국인은 성격이 매우 급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IT강국이 된 것도 이와 같은 성격이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본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우선심사제도는 실무운용상 타국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에서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특허는 2015년 1월 6일에 출원하여 3주 후인 1월 2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방충 열수축필름]

출원인: 호면화학공업주식회사
출원번호: 1020150001141
출원일: 2015.01.06
등록번호: 1014887840000
등록일: 2015.01.27



2. 우선심사대상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출원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출원공개 후 타인이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

출원이 미등록 단계에서 타인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조기 등록으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출원공개 후라는 조건 하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분야와 관련된 출원, 실시관련 출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

특정분야(에너지 절약, 전자상거래, 환경오염방지 등)의 출원이나 이미 실시 중이거나 또는 준비 중인 경우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를 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실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출원의 경우

한국과 PPH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지역(일본 등)에서 출원이 등록되었거나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실시하여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기업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특허는 2015년 5월 8일에 출원하여 같은 해 6월 1일에 등록결정되어 6월 30일자로 등록된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국출원시 특허청구범위는, 타국에서 등록된 것을 이유로 한 PPH신청의 경우는 타국에서 등록된 특허청구범위, PCT출원을 근거로 한 PPH신청의 경우는 PCT출원의 특허청구범위로 각각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관이 먼저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타국 특허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검색결과와 일치하면 심사관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질심사를 실시합니다.

[볼 앤드 밀 및 인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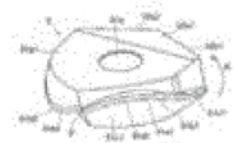
출원인: Mitsubishi Hitachi Tool Engineering, Ltd.

출원번호: 1020157012166

출원일: 2015.05.08

등록번호: 1015341200000

등록일: 2015.06.30



(4) 지정된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마지막으로 아무 조건 없이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경로를 이용하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방충 열수축필름도 이 경로를 통해 등록된 건입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신청하는 데 든 비용은 7만엔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고 한국에서의 조기 등록이 필요한 건이라면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한국의 우선심사를 이용한 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우선 등록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일본에서 PPH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심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1개월 이내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 늦어도 통상 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해설자]

유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소장 김수진 변리사

경북대학교 화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석사과정 수료, 인하대학법학부 로스쿨 겸임교수 역임, 화학·약학분야 전문

(감수: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호 히데오)

File No.89

반도체 장비 시장 동향 및 한국 특허출원 동향



2014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540억5,000만 미달러(약 40조 6,580억엔)로 이 중 한국은 16.5%(삼성전자 10.7% 정도, SK하이닉스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시스템 반도체분야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는 강세를 나타내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고도의 제조장치(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의 동향을 시장 및 특허출원 동향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반도체 장비 시장 동향

전세계 반도체 장비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40억 미달러 정도이며 반도체 장비 분야 상위 기업은Applied Materials, ASML, Tokyo Electron, LAM Research 순으로,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증착장비분야에서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이며, 식각/세정/평탄화 장비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M Research는 식각/세정/평탄화 장비 분야에서 선두이며, 증착장비 분야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은 대형 반도체 칩 제조 기업이 2개 있음에도 반도체 장비 기업은 세정/식각/평탄화 장비 분야에서 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 장비 분야 상위 25개 기업내에 1개 기업 (SEMES)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특허출원 동향

[표1] 글로벌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연도별 한국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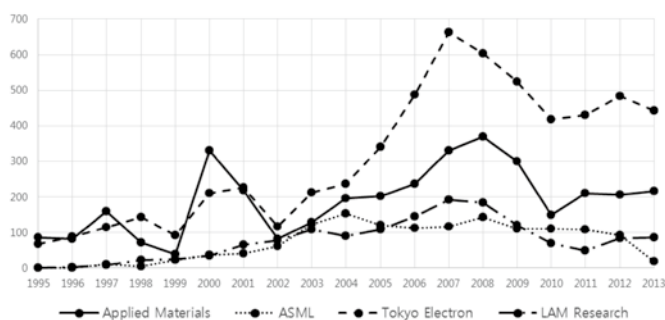


표1은 글로벌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한국 특허출원 동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Tokyo Electron이 가장 많은 5,900여건의 출원을 하였으며, Applied Materials가 3,600여건, LAM Research가 1,470여건, ASML이 1,380여건의 출원을 하였습니다. Applied Materials와 Tokyo Electron은 2000년 이전에도 연간 100건 내외의 출원이 있었으나, ASML과 LAM Research는 2000년 이전에는 출원이

저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여 2007년, 2008년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Tokyo Electron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급속히 출원이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원이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표2]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 연도별 한국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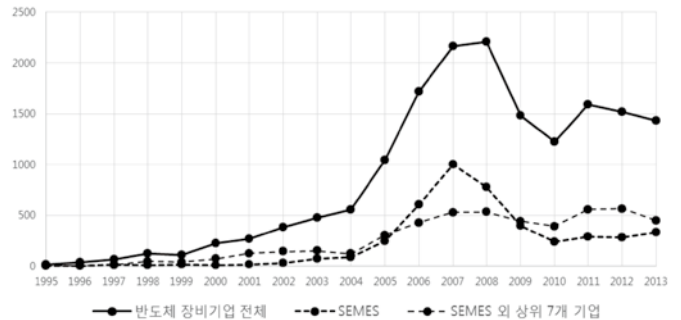


표2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한국 특허출원 동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반도체 장비기업은 17,000여건의 출원을 하였으며, SEMES는 전체 반도체 장비기업의 출원건수의 1/4이 넘는 4,500여건의 출원을 하였습니다. SEMES 외 상위 7개 반도체 장비기업은 5,000여건 정도의 출원을 하였습니다. SEMES 포함 출원 상위 8개 기업의 출원건수가 전체 반도체 장비기업 출원건수의 5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출원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출원이 급증하였다가 2009년, 2010년에는 출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연간 1,5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SEMES의 출원동향과 거의 유사한데 SEMES 외의 상위 7개 기업은 급격한 출원의 증가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기업은 한국의 다른 분야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 대비 상당히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중소기업 다출원 순위에 많은 반도체 장비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기업의 전세계 반도체 장비시장 점유율은 높지는 않으나, 한국 반도체 장비기업은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을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IPG



〈이번 호 해설자〉

GIP Korea 특허법률사무소 임세준 변리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재직, 2013년에 반도체산업발전 공로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감수: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호 히데오)